



남원 도통동, 여름 보양식 삼계탕 전달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3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에 보양식 삼계탕 60그릇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가족관계가 단절된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60가구를 직접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확인과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한 삼계탕은 도통동 시장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을 사용해 나눔과 기부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일부사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기정에서 안쓰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기증해 도통동 시장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삼계탕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끼니를 챙길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보양식을 가져다 줘서 너무 고맙고 힘이난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밥복을 맞아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삼계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음기 나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하반기 청년취업시험준비반 개강

정읍시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이 지난 12일 하반기 교육을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수강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 과정, 시간계획표, 생활규칙 등을 안내했으며, 이후 공무원 직강강 강의가 진행됐다.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은 수강생들의 특성에 맞춰 공무원 직강반·공무원 동영상반·공기업(NCS) 동영상반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공무원 직강반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과목을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 공기업 동영상반은 수리영역,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세 가지 과목을 제공한다. 공무원 동영상반의 경우, 전과목 강의가 지원된다. 이번 하반기 과정은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공무원·공기업 시험을 대비해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돋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직인 시험 교육과 함께 학습 전담매니저를 통한 철저한 학습 관리를 지원된다.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은 2023년 6월 개강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금융권에서 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올해 6월 실시된 전북특별자치도·지방직 공무원임용시험에서도 12명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공기업 시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정읍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시민과 그 배우자·자녀로, 18세부터 45세까지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치매안심센터, 사랑에 쉼터 하반기 운영 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13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에 쉼터 하반기 운영을 위해 치매 예방관리사, 지원봉사자 및 김제 개인택시단위조합(조합장 김형국)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랑에 쉼터는 경증 치매 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거리가 멀어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운영 시간에 맞춰 집까지 방문하고 다시 집에 데려다 주는 치매환자 택시 송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운영 관계자들은 경증 치매 환자의 치매 증상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에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랑에 쉼터 운영의 질적 향상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호남고속 서재선 운전원, 친절기사 표창

우범기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내 10명의 시내버스운전원 표창 받아

100세가 넘어서도 왕성한 경연 활동으로 국민에게 사색의 힘을 길러주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가 경연에서 말한 이야기 중의 하나다.

김 교수는 국민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장관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버스 기사를 하면서 교통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더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김 교수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일의 소중함을 깨우쳐주신 것이라 나름대로 해석해 보게 된다.

지난 8월 8일 우범기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내 10명의 시내버스 운전원이 표창을 받았다. 그 중에는 호남고속 소속인 서재선 운전원도 포함됐다.

호남고속 소속인 서재선 운전원은 60년 출생으로 만 64세임에도 시내버스 운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교통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일에 헌신하



고 있다.

오전에는 이를 새벽인 4시부터 일을 나와야 하고 오후에는 2시 전후에 출근해 자정이 다 되어야 끝나는 장시간의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다.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다른 운전원보다 1시간 먼저 이를 새벽에 나와 회사 내 차량이 일 나가기 좋게 차량을 정돈하는 일을 하는 등 친절 안전기사 이전에 회사에서는 모범사원이기도 하다.

다른 운전원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 차량을 이동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

서 운전원은 매일 자신의 버스에 오르는 모든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혹시 노인이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이 이동권 보호에도 열과 성을 다해 입한 결과 이번 친절 안전기사에 선정됐다.

늘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하는 관계로 자녀도 잘 키워 정성해 교육에 근무하고 있지만 자신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에 열과 성을 다해 힘쓰고 있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이만호 기자



완주 고산 서봉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기념식

완주군 고산면이 최근 서봉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을 기념해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유)서봉마을에너지의 고산 공공수수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남용 김규성 의원 등이 참석해 서봉마을 에너지 유관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서봉마을은 태양광사업을 준비한지 4년 만에 완공의 기쁨을 안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기쁘고 축하드린다"며 "태양광 시설이 서봉마을의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소방서, 김제쌀 소비촉진·아침밥먹기 운동 협약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13일 김제소방서(소방서장 오승주)와 김제쌀 소비확대를 위한 '김제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시)고향부주모임 김제시지부(회장 최봉금) 이하 고주모(라 함)에서 김제소방서 직원에게 아침밥밥을 전달하고, 간편식으로 김제쌀로 만든 컵누룽지 300개를 기탁했다.

고주모는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여성단체로 고향시장, 농촌시장 나눔의 뜻을 실천하고 관내 운영농협은 진봉농협(조합장 임영택)과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이다.

조원석 지부장은 "쌀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해주시는 소방서장님과 고주모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침밥 먹기 생활화 등을 통한 쌀 소비촉진 활성화에 김제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승주 소방서장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김제소



방서는 김제쌀 소비확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상호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김제시지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김제쌀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형성과 아침밥 먹기 봄 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 KT&G와 주거 환경개선 완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3일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의 후원으로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주거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배·장판·타일 교체 등의 주택 개보수나 미성년 자녀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부방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열악한 학업환경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만들기로 진행되었다.

/이만호 기자

남원 금동, 콩물 250병 취약계층에 전달

남원시 금동은 13일, 노고단식품(대표 강상길)에서 무더위를 날려줄 콩물 250병(백만원상당)을 등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노고단식품(조선동)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4여년 전부터 콩물을 지원

해 오고 연말연시 희망나눔 캠페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후원받은 콩물은 1일 1가구 대량행정을 통해 빌려준 취약계층 및 노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상길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는데, 어느 해보다 더운 올 여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마을공연장 프로그램 통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

정읍시와 (시)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는 지난 12일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마을공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받은 라면 40박스를 수성동과 연지동행정복지센터의 공유방장고에 기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시작된 시민뮤지컬 '우리들의 꿈'과 정읍챔비오케스트리의 '시민음악회'에서 모은 라면을 후원받아 진행됐다.

특히 가정방문 과정에서 안부를 묻고 취약계층의 생활 상태를 파악해 각종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봉사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작지

대 빌려줄 수도 있게 됐다.

최용훈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 활동을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여성단체협의회, 사랑빵빵! 행복빵빵! 제빵 봉사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광순)는 지난 12일 장수군 여성봉사센터에서 2024년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빵빵! 행복빵빵! 제빵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원 13명이 참여해 직접 정성스레 만든 빵과 음료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100여 명에게 전달하여 안부를 전했다.

특히 가정방문 과정에서 안부를 묻고 취약계층의 생활 상태를 파악해 각종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봉사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작지

대 빌려줄 수도 있게 됐다.

김광순 협의회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빌려줄 수도 있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 운봉읍 지역사회협동조합, 막부 맞아 삼계탕 나눔

남원시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막부를 맞아 지난 13일 관내 독거 어르신, 중장년 독거 가구 등 혼자 지내는 소외계층 100가구에게 삼계탕 나눔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 마을 이장,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무더위를 이기시도록 100미리 허리에 직접 전달하여 어르신 건강 확인 및 안부를 살폈다.

한 어르신은 "날씨가 너무 더워 입맛이 없고, 올해 삼계탕을 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집까지 삼계탕을 가져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수호 협의체 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